

동작상(動作相) 체계와 현대 중국어 구현 양상*

장호득**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시간부사를 통한 구현 |
| 2. 동작상의 이론적 체계 | 3) 통사 구조를 통한 구현 |
| 3. 동작상의 현대 중국어 구현 양상 | 4. 맺음말 |
| 1) 상 표지에 의한 구현 | |

【초록】

본고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개별언어학이 아닌 일반언어학 관점에서 동작상(動作相)의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개별 언어인 현대 중국어에 적용하여 어떤 동작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치론(二值論)과 중간 단계 기준값이라는 중간 숙주 개념을 도입하여 동작상의 체계를 만들었다.

현대 중국어에서 어떤 동작상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분석하면서 그 구현 방식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야 함을 밝혔다. 첫째, 전형적인 문법상인 상 표지 ‘了, 着, 過’가 술어 뒤에 와서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正, 在, 正在’와 같은 시간부사가 술어 앞에 위치하여 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부사어 역할을 하면서 상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 일부 연구자들이 상 표지로 보는 견해와 달리 본고는 아직까지 전형적인 문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셋째, ‘快(就)(要)…了’처럼 통사 구조를 통하여 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도 전형적인

* 본고는 2024년 11월 18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중국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2023년도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자로서 좋은 의견을 주신 기유미 교수와 청중으로서 훌륭한 질의와 제안을 해 주신 엄익상, 김영찬 등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장호득,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sinodesk@hanmail.net)

문법상으로 볼 수 없다.

앞으로 ‘正, 在, 正在’와 같은 시간부사가 과도기를 거쳐 상 표지 역할을 하면서 영어의 완료형 구조인 ‘have+p.p.’(past participle, 과거분사)처럼 ‘在+V+着’, ‘有+V+過’ 등의 전형적인 분석형 형식으로 변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키워드】 동작상(動作相), 체계, 현대 중국어, 상 표지, 시간부사, 통사 구조

1. 머리말

본고는 우선 일반언어학 관점에서 어법 범주인 동작상(動作相, aspect)¹⁾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개별 언어인 현대 중국어에 적용하여 어떤 동작상이 구현되고, 어떤 동작상이 구현되지 않는지 등 그 구현 체계를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전제와 가설을 세우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흑백 논리(黑白論理)가 아닌 이치론(二值論)²⁾의 관점에서 진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학문은 컴퓨터의 작동 원리에 맞추어 이론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전기 신호의 ‘+’와 ‘-’ 두 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값 ‘2’를 구하고자 하면 ‘(1+1)’의 과정을 거치지만, 값 ‘3’을 구하고자 하면 바로 ‘(1+2)’나 ‘(2+1)’의 방식으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의 값을 구하는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갖는 ‘[1+(1+1)]’이나 ‘[(1+1)+1]’의 과정³⁾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론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런 관점에서 언어 현상을 체계와 층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아직도 찾지 못한 어떤 층위, 즉 중간 단계⁴⁾의 기준값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어

1) 문법상(文法相, grammatical aspect) 또는 관점상(觀點相, viewpoint aspect)이라고도 한다. 문법상은 어휘상(語彙相, lexical aspect)과 함께 상(相, aspect)을 구성한다.

2) 본고에서 정의하는 이치론은 단순한 일정 층위에서의 절대적인 단항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어떤 체계 속에서 중간 층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치(二值)로 열린 값을 전제로 하는 관점이다.

3) 바꾸어 말하면 일반적인 십진법의 원리가 아니라 모든 이론은 이진법의 원리로 체계화되고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이를 논지 전개 상황에 따라 ‘중간 숙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이는 수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본고의 연구에 활용한 것이다. “중간[^]숙주(中間宿主) 『수의』 기생충이 성숙하기까지 몇 단계의 숙주를 거칠 때 마지막 숙주 이외의 모든 숙주, 폐디스토마는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다슬기와 가재를 중간 숙주로 한다. 늑중간 기주(中間寄主).”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search, searchView.do?word_no=308473&searchKeywordTo=3#word

떤 이론(理論)이든 그것은 영원한 가설(假說)이기 때문이다. 즉, 이론은 변증법(辯證法) 선상(線上)의 가설이다.

셋째, 위의 방식으로 체계화하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언어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안하는 동작상의 이론적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현대 중국어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모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⁵⁾

2. 동작상의 이론적 체계

본고의 동작상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기에 앞서 기존의 어휘상(語彙相, lexical aspect)⁶⁾ 및 동작상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어휘상은 개념적 의미 또는 어휘 의미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동작상, 즉 문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 초기에는 이런 구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또 이 어휘상에서 문법상으로 연구로 확대·발전되어 왔으므로 아래 선행 연구에서는 어휘상 부분도 포함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문법상 체계에 대한 연구에 앞서 서구에서는 어휘상 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어휘상 체계 부분에서 대표적인 제노 벤들러(Zeno Vendler: 1957, 1967), 버나드 콤리(Bernard Comrie: 1976, 2005), 마크 모엔스와 마크 스티드만(Marc Moens and Mark Steedman: 1988)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본고의 동작상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가설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노 벤들러(1957, 1967)의 어휘상 체계는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는 초창기의 주요 이론 체계이다. 제노 벤들러는 사태(eventuality)⁷⁾의 양상에 따라 어휘상을 역동성(力動性, dynamism), 기간성(期間性, duration), 종결성(終決性, telos)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역동성(力動性, dynamism)의 유무에 따라 사태 내부의 분석 가능성을 판단하여 상태(state)와 비상태로 구분하였다. 또 기간성(期間性, duration)의 유무에 따라 사태에 시간의 폭(time span)

sLink, [2023.10.30.]

5)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제음성기호(IPA) 체계라고 생각한다. 이 기호표는 철저하게 이치론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런 까닭으로 ‘무성 양순 비음’, ‘성문 비음’ 등처럼 실제로는 음가가 구현되지 않는 공백이 있기도 하고, 중설 중모음인 슈와(schwa) [ə]처럼 짝이 없는 경우도 있다.

6) ‘동작류(動作類, aktionsarten)’라고 하기도 한다.

7) ‘사태(eventuality)’는 ‘사건(event)’과 ‘상태(state)’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존재하는지를 따져 달성(achievement)과 비달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결성(終決性, telos)의 유무에 따라 사태의 끝점(final point) 존재 여부를 따져 상태(state)와 행위(activity)⁸⁾, 완수(accomplishment)와 달성(achievement)⁹⁾으로 구분하였다.¹⁰⁾ 이에 따른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1> Zeno Vendler의 분류

구분	역동성(dynamism)	기간성(duration)	종결성(telos)
상태(state)	-	+	-
행위(activity)	+	+	-
완수(accomplishment)	+	+	+
달성(achievement)	+	-	+

상태(state)에 해당하는 예로는 like, have, believe, know 등이 있고, 행위(activity)에 해당하는 예로는 run, walk, swim 등이 있고, 완수(accomplishment)에 해당하는 예로는 paint a picture, build a house, write a novel 등이 있으며 달성(achievement)에 해당하는 예로는 recognize, reach the summit, win the race 등이 있다.

이후에 버나드 콤리는 ‘역동성(dynamism)’ 기준을 ‘상태성(state)’으로 대체한 후 ‘순간(semelfactive)’이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어휘상을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수(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 ‘순간(semelfactive)’ 등 다섯 개로 분류하였다.¹¹⁾ 순간(semelfactive) 유형은 자연스러운 끝점과 시간의 폭이 드러나지 않는 사태를 나타낸다. 이에 따른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2> 버나드 콤리(Bernard Comrie)의 어휘상 분류

구분	상태성(state)	기간성(durativity)	종결성(telicity)
상태(state)	+	+	-
행위(activity)	-	+	-
완수(accomplishment)	-	+	+
달성(achievement)	-	-	+
순간(semelfactive)	-	-	-

8) 학자에 따라 ‘활동’ 등으로 달리 번역하기도 한다. 조경환(2015: 28)은 ‘행위’를 ‘활동’으로 번역하였다.

9) 학자에 따라 ‘성취’ 등으로 달리 번역하기도 한다. 조경환(2015: 28)은 ‘달성’을 ‘성취’로 번역하였다.

10) Zeno Vendler,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66(2), 1957, pp.25-26. Zeno Vendler, *Linguistics in philosophy*,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p.106.

11) Bernard Comrie, *Aspect(體範疇)*, 北京大學出版社, 1976/2005, pp.42-43, p.25.

다른 방식으로 아래의 표처럼 나타낼 수도 있다.

	순간성(Punctual)	기간성(Durative)
종결성(Telic)	달성(Achievement): (to release)	완수(Accomplishment): (to drown)
비종결성(Atelic)	순간(Semelfactive): (to knock)	행위(Activity):(to walk)
상태성(Static)		상태(State): (to know)

마크 모엔스와 마크 스티드만은 ‘사건의 핵(the event nucleus)’이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중심으로 ‘예비 국면(Preparatory phase)’과 ‘후속 국면(Consequent phase)’을 설정하여 순간(semelfactive), 상태(state), 행위(activity), 달성(achievement), 완수(accomplishment)를 아래 표와 같이 재해석하였다.¹²⁾

<표3> 모엔스와 스티드만(Moens and Steedman)의 분류

	사건의 핵(Event nucleus)		
	예비 국면 (Preparatory phase)	정점 사건 (Culminating event)	후속 국면 (Consequent phase)
순간(semelfactive)		+	
상태(state)			+
행위(activity)	+		
달성(achievement)		+	+
완수(accomplishment)	+	+	+

위 표를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태를 더 정교하게 세분하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완망상(完望相, perfective)¹³⁾과 비완망상(非完望相, imperfective)이 어떻게 구분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잘 포착할 수가 없다. 또 완망상 사태를 내부적으로 바라보고 그 행위 또는 동작의 한 장면, 한 장면에 해당하는 ‘구분 동작’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 대한 요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는 아래와 같은 단계별 기준을 설정하여 동작상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

12) Marc Moens and Mark Steedman, “Temporal Ontology and Temporal Refer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14(2), 1988, p.90.

13) ‘perfective’에 대한 번역으로 ‘완료상(完了相)’이나 ‘완결상(完結相)’ 또는 ‘완정상(完整相)’을 사용하기도 하며, 중국어학계에서는 ‘상’ 대신 ‘태’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하여 혼란을 가져 오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사태 전체를 아우르게 본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 ‘완망상’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분법(이진법)에 따른 기준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그 중간 단계(중간 숙주)를 최대한 찾아 동작상의 이론적 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體系性’과 ‘二值性[이원론(二元論)]’을 전제로 ‘中間宿主(intermediate host, [中間宿主, 中間寄生主])’ 개념을 도입하고 응용하여 이진법(二進法) 또는 이분법(二分法)의 원리로 모든 언어를 아우르는 일반언어학적 관점의 동작상 이론 체계를 가설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가설은 이런 몇 가지 원리에 따라 제안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이론은 변증법 선상의 영원한 가설이므로 앞으로 언제든 지 수정·보완을 전제하는 열려 있는 체계임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이 일반언어학적 문법상 가설 체계는 특수언어학의 한 대상인 현대 중국어 문법상의 체계와 구현 상황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표4> 장호득의 분류¹⁴⁾

完望性 ¹⁵⁾						非完望性							
完結性			未結性 ¹⁶⁾			連續性				斷續性			
非先行性		先行性	非未來性		未來性	繼承性		非繼承性		非週期性		週期性	
完了性	完成性	既往性	經歷性	成事性	豫定性	繼續性		瞬間性	非瞬間性	一回性	多回性	習慣性	
完了相	完成相	既往相	經歷相	成事相	豫定相	承繼相	後續相	瞬間相	進行相	持續相	試圖相	頻繁相	習慣相

위 표에 따르면 분류 체계의 층위와 중간 단계는 아래와 같다.

제일 먼저 사태(사건과 상태)를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과 사태의 핵심 부분을 미시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즉, 그 설정 과정의 기준은 사태를 망원경 방식으로 볼 것인지, 내시경 방식으로 볼 것인지를 제1 기준으로 정하여 층차에 따라 중간 숙주를 찾으면서 이분법으로 하위 범주를 세분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사태를 망원경 방식으로 보는 전자를 ‘완망성’으로, 내시경 방식

14) 이 분류에서 사용한 용어는 한자의 자의(字義)에 따라 명명하였다. 예컨대 ‘경험상’을 사용하고 않고 ‘경력상’을 사용한 것은 ‘이미 지나간 대과거’를 표현하는 용어로는 ‘驗(증험할-힘)’보다 ‘歷(지낼-력)’이 의미적으로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 ‘선행성’, ‘미래성’, ‘주기성’은 이분법이 아닌 듯 보이지만 그 상위 층차에서 이미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3’을 이분법으로 나누면 $[1+(1+1)]$ 또는 $[(1+1)+1]$ 로 나누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15) ‘완망성’을 띠는 것을 ‘완망상’이라는 문법상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마지막 층위에서만 ‘-상’을 붙이고 최상위부터 중간 계층 단계에서는 ‘-성’을 붙였다.

16) 이 표의 몇몇 용어는 달리 나타낼 수도 있다. 예컨대 ‘未結性’을 ‘未終結性’으로, ‘斷續性’을 ‘非連續性’으로, ‘先行性’을 ‘大過去性’으로, ‘非繼承性’을 ‘持續性’으로 ‘非週期性’을 ‘反復性’으로, ‘完了性’을 ‘完結性’으로, ‘經歷性’을 ‘結果持續性’으로, ‘成事性’을 ‘一段落性’으로, ‘豫定性’을 ‘臨迫性’으로, ‘豫定相’을 ‘臨迫相’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으로 보는 후자를 ‘비완망성’으로 설정하였다.

완망성을 중심으로 중간 단계, 즉 중간 숙주인 ‘완결성’ 여부, ‘선행성’ 여부, ‘미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완료상’, ‘완성상’, ‘기왕상’, ‘경력상’, ‘성사상’, ‘예정상’ {임박상} 등 6개의 동작상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시 비완망성을 중심으로 중간 단계, 즉 중간 숙주인 ‘연속성’ 여부, ‘계승성’ {지속성¹⁷⁾} 여부, ‘주기성’ 여부, ‘순간성’ 여부, ‘다회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상’, ‘후속상’, ‘순간상’, ‘진행상’, ‘지속상’, ‘시도상’, ‘빈번상’, ‘습관상’ 등 8개의 동작상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고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동작상을 총 14개 체계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는 어떤 언어에서는 전형적인 문법상으로 구현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는 상적 개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런 동작상 가운데 어떤 동작상이 어떤 방식으로 현대 중국어에서 구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동작상의 현대 중국어 구현 양상

현대 중국어의 동작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Tai, James(1984), 鄧守信(1985), 陳平(1988), 龔千炎(1995), 戴耀晶(1997), 顧陽(1999), 楊素英(2000), 김덕균(2006), 이은수(2006), 최규발(2010), 강병규(2011), 조경환(2015) 등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 그중 대부분의 연구는 위의 제노 벤들러(1957, 1967), 버나드 콤리(Bernard Comrie, 1976, 2005) 등의 이론 체계를 토대로 중국어를 대상으로 삼아 이에 맞는 이론 체계를 분석하고 구명하면서 각자의 이론을 밝히고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좀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Macroscopic viewpoint)과 미시적인 관점(Microscopic viewpoint)을 동시에 적용하여 일반언어학적 동작상의 이론 체계를 제시하면서 이것들이 현대 중국어에서 어떤 동작상이 구현되고, 어떤 동작상이 구현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므로 기존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소략 하도록 하겠다.

동작상의 현대 중국어 구현 양상을 크게 상 표지에 의한 구현, 시간부사를 통한

17) ‘지속성’은 사태를 안으로 들여다보는 관점으로 미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작을 슬로비디오(slow video)나 체조의 ‘구분 동작’으로 인식하는 관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구현, 통사 구조를 통한 구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상 표지에 의한 구현

상 표지란 어법 형식으로 어법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를 가리킨다. 현대 중국어의 대표적이면서 전형적인 상 표지는 ‘了, 着, 過’ 3개이다. 이들은 모두 술어 뒤에 와서 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실현되는 사태(eventuality)의 상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了, 着, 過’의 상적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설로 인정되는 명확한 학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앞에서 제시한 동작상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그 구현 양상을 아래에서 예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他們已經吃完了二十個餃子. 그들은 교자 20개를 이미 다 먹었다.
- (2) 這本小說我看了兩天了, 還沒看完. 이 소설은 내가 이틀 동안 봤는데 아직 다 못 봤다.
- (3) 我們先吃了飯再走吧. 우리 우선 밥 먹고 다시 가자.

(1)은 교자를 이미 다 먹은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완료’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완료태¹⁸⁾ 또는 완료상으로 본다. 그런데 (2)를 보면 ‘아직 소설을 다 보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때 ‘了’를 과연 ‘완료’라는 상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의 경우도 ‘밥 먹는 동작이나 행위’는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전체 사태를 보면 ‘了’가 ‘완료’라는 상적 개념을 표현한다고 하기 보다는 선행 동작의 ‘일단락’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호득은 이런 관점에서 (1)–(3)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법 의미 또는 상적 개념을 ‘일단락’, 즉 ‘성사성’으로 보고 ‘성사상(成事相)’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¹⁹⁾ 이는 앞의 동작상 체계표에 따르면 그 층차에 따라 ‘완망성(完望性)’–‘미결성(未結性)’–‘비미래성(非未來性)’–‘성사성(成事性)’으로 연결되는 상 표지라고 할 수 있겠다.

- (4) 她們還看着電影. 그녀들은 아직 영화를 보고 있다.
- (5) 她們沒看着電影. 그녀들은 영화를 보지 않고 있다.

18) 현대 중국어 교재나 연구 논문에서 ‘aspect’를 ‘태’ 또는 ‘시태’로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상’이라는 낱말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명(正名)’의 관점에서도 옳다고 생각한다. 중국어로 표현할 때도 ‘態’ 또는 ‘時態’라는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정명(正名)’의 관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 2013.

- (6) 銀行還開着. 은행이 아직 열려 있다.
- (7) 電腦沒開着.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다.
- (8) 奶奶戴着眼鏡看報. 할머니는 안경을 끼고 신문을 보신다.

(4)-(8)은 모두 한국어로 ‘-고 있-’ 또는 ‘-어 있-’으로 ‘진행’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7)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着’가 ‘상태’의 ‘지속’ 여부를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도 ‘안경을 끼다’라는 동작·행위를 ‘지속’한 상태로 ‘신문을 보다’는 동작·행위를 연결하여 완전한 사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현대 중국어의 ‘着’도 상 표지로서 동작상의 이론적 체계의 층차에 따라 ‘비완망성(非完望性)’-‘연속성(連續性)’-‘비계승성(非繼承性)’-‘비순간성(非瞬間性)’ 또는 ‘지속성(持續性)’의 의미자질을 가진 ‘지속상(持續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학자에 따라 ‘着’를 ‘진행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는 동작의 진행을 구분 동작의 연속으로 보아 지속으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着’가 동작의 진행을 표현하는 상적 역할이 약화되면서 또 ‘비완망성’-‘연속성’-‘비계승성’-‘비순간성’에서 ‘진행성’까지 표현해야 하는 현대 중국 언중의 사고체계 정교화에 따라 뒤에서 다룰 시간부사 ‘正, 在, 正在’가 출현한 것으로 본다.

- (9) 他來過我家. 그는 우리 집에 왔던 적이 있다(왔었다).
- (10) 他沒來過我家. 그는 우리 집에 온(왔던, 왔었던) 적이 없다.
- (11) 她去過北京. 그녀는 베이징에 가 본 적이 있다(가 봤었다).
- (12) 你吃了飯沒有? 我吃過, 吃過. (너) 밥 먹었니? 나 먹었어, 먹었어.

(9)-(12)는 동작이나 행위가 종결되거나 완결된 후 ‘이미 지나간 사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過’가 술어 뒤에서 상 표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의 체계에 따르면 상 표지 ‘過’는 그 층차에 따라 ‘완망성(完望性)’-‘완결성(完結性)’-‘선행성(先行性)’-‘기왕성(既往性)’을 의미자질로 삼아 ‘대과거(大過去)’인 ‘기왕상(既往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2)에서는 ‘了’와 ‘過’가 ‘-었/았-’의 의미로 쓰여 용법이나 문법적 특징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태가 ‘일단락’ 또는 ‘마무리’되는 시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완망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용될 수 있는 언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볼 때 ‘了, 着, 過’는 술어 뒤에 오는 어법 형식으로서 각각 ‘성사성’, ‘지속성’, ‘기왕성’의 동작상 어법 의미를 나타내면서 전형적인 상 표지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간부사를 통한 구현

다음으로 ‘正, 在, 正在’²⁰⁾라는 시간부사를 통해 구현되는 상적 개념을 들 수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3) 正下着雨呢! 때마침 비가 내리고 있어.
- (14) 我在看電影. 나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 (15) 我在看着你. 나는 너를 보고 있어.
- (16) 他正在穿西服. 그는 마침 양복을 입고 있다.
- (17) 我正在看電影呢. 나는 때마침 영화를 보고 있(었)잖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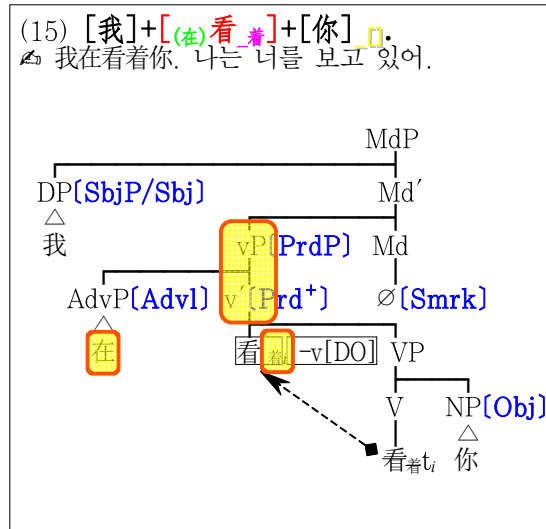
(13)–(17)은 사태의 의미로 본다면 ‘마침 또는 때마침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우 ‘진행’의 개념, 또는 상적 개념으로 ‘진행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휘상, 즉 개념적 의미 또는 어휘 의미에 따른 ‘진행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형적인 상 표지에 따른 문법상으로는 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17)의 ‘正在…呢’ 구조를 진행상으로 보면서 ‘呢’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장호득은 이 ‘呢’를 [+樣態]와 [-疑問]의 의미자질로 분석하여 상적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²¹⁾ 김덕균(2006)은 술어 앞에 오는 ‘在’를 ‘진행상’, 술어 뒤에 오는 ‘着’를 ‘지속상’으로 보고 이를 모두 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現代漢語詞典(제7판)』(2016)을 보더라도 이는 엄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시간부사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다. (13)을 보더라도 ‘正’은 ‘마침’ 또는 ‘때마침’이라는 시간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着’가 상적 개념인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3)–(17)의 ‘正, 在, 正在’는 실질적인 어휘인 시간부사를 통해 상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전형적인 상적 표현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들이 앞으로 고립어라는 종합적 형식의 언어 구조에서 분석적 형식의 언어 구조로 변화할지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볼 일이다. 예컨대 대만 등 중국의 방언에서 사용하고 있는 ‘有看過. ’, ‘有吃過. ’라는 표현도 이런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러므로 영어의 상적 표현인 ‘have+p.p.’(past participle, 과거분사) 통사 구조처럼 ‘在+V+着’, ‘有+V+過’ 등과 같은 전형적인 분석형 통사 구

20) 근래에 들어 일부 학자들은 술어 앞에 오는 이 시간부사를 문법상 체계 속에 넣기도 본고는 언어형식의 체계성 기준에 따라 술어 뒤에 오는 상 표지는 문법상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본고의 연구는 이런 동기에서 출발한 측면도 있다.

21) 장호득, 「현대중국어 의문문에 쓰인 ‘呢’의 의미자질」, 『中國學』, 第61輯, 대한중국학회, 2017, p.335.

조로 변화할지 여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아래에서 (15)의 수형도를 보자.



위 수형도를 분석해 보면 부사구(AdvP)이자 부사어(Advl)인 ‘在’가 ‘진행’ 개념을 띠면서 경동사구(vP)인 ‘看’을 수식하고 있고, ‘看’은 다시 ‘着’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지속’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시간부사인 어휘 ‘在’는 개념적으로 ‘진행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동작상 표지인 ‘着’는 동사 ‘看’ 바로 뒤에 붙어 통사적으로 ‘지속성’ 개념을 나타내는 ‘지속상’ 역할을 하고 있다. ‘看’은 체조할 때의 구분 동작처럼 이산(離散)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작 동사로서 전체적인 사태는 ‘看₁’, ‘看₂’, ‘看₃’, ..., ‘看_{n-1}’, ‘看_n’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된다. 이런 지속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看’ 뒤에 오는 ‘着’이다. 그 가운데 ‘看₂’나 ‘看₃’ 등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부사 ‘在’를 추가함으로써 그 사태가 ‘...하는 중에 있다’, ‘...하는 중이다’ 등의 ‘진행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正, 在, 正在’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아직 ‘시간부사’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태의 내부 모습을 슬로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을 시간(time)이 아닌 짧은 시간의 포인트인 순간적인 타이밍(timing)에서 포착하는 방식으로 진행상의 상적 개념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통사 구조를 통한 구현

快(就)要...了’ 등의 통사 구조²²⁾를 통하여 현대 중국어의 상적 개념을 구현하기도

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8) 他快要入伍了. 그는 곧 군대에 갈 것이다.

(19) 還有半個月的時間就要開學了. 반 달 있으면 바로 개학이다{개학할 것이다}.

(20) 快十二點了. 곧 12시가 된다{될 것이다}.

(18)–(20)은 ‘快(就)要…了’나 ‘快…了’ 등의 통사 구조 형식을 통해 상적 개념을 구현해 내고 있다. 그 상적 개념은 ‘곧 …할 것이다{하겠다}’ 등의 의미를 담고서 ‘예정성’ 또는 ‘임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정상’ 또는 ‘임박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현대 중국어의 ‘快(就)要…了’나 ‘快…了’ 등의 통사 구조는 이론적 체계 표의 층차에 따르면 ‘완망성(完望性)’–‘미결성(未結性)’–‘미래성(未來性)’–‘예정성(豫定性)’의 의미자질을 가진 ‘예정상(豫定相)’ 또는 ‘임박상(臨迫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현대 중국어의 문법상(동작상)의 구현 양상을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5> 동작상의 현대 중국어 구현 양상²³⁾

完望性 ²⁴⁾						非完望性							
完結性			未結性 ²⁵⁾			連續性				斷續性			
非先行性		先行性	非未來性		未來性	繼承性		非繼承性			非週期性		週期性
完了性	完成性	既往性	經歷性	成事性	豫定性	繼續性		瞬間性	非瞬間性		一回性	多回性	習慣性
完了相	完成相	既往相	經歷相	成事相	豫定相	承繼相	後續相	瞬間相	進行相	持續相	試圖相	頻繁相	習慣相
		상 표지 '過'		상 표지 '了'	통사 구조 '快{就} 要...了'				시간 부사 '正, 在, 正在'	상 표지 '着'			

22) ‘快(就)要…了’ 통사 구조 외에도 학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형적인 통사 구조만을 다루기로 한다. 예컨대 추향동사 ‘下去’, ‘起來’ 등이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 ‘지속’, ‘시작’ 등 동작상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23) “我爸爸已經死了三年了. 她病了三天了. 她大學畢業已經四十年了.”는 經歷相(結果持續相)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着’가 처음 생성되던 초기 시기에는 ‘了, 過’와 함께 ‘完望相’이었다가, ‘狀態’ 표현이 ‘非完望相’–‘持續相’으로 변하고, 사고방식(사태에 표현에 대한 정교함)의 변화로 ‘非完望相’–‘進行相=(動態)持續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在’ 등이 타임(time)이 아닌 타이밍(timing)으로써 사태의 핵을 內視鏡(endoscope)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본 연구 진행 중에 나온 필자의 개인적인 가설로 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위 표를 통해 볼 때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중국어의 상 표지에서 ‘了’와 ‘過’는 완망상에 속하고 ‘着’은 비완망상에 속하여 구분되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 중국어에서 ‘了’는 영어 등 서구어처럼 전형적인 ‘완료상’이나 ‘완성상’에 해당하기보다는 사태의 ‘일단락성’을 나타내는 ‘성사상’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셋째, 현대 중국어에서 ‘진행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문법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학자들은 시간부사 ‘正, 在, 正在’를 문법상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본고는 현대 중국어 통사구조 체계 내에서의 전형적인 상 표지는 술어 뒤에 오는 것만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술어 앞에 오는 것까지 인정하면 영어의 ‘have +동사+pp.’(past participle, 과거분사) 구조처럼 현대 중국어 통사구조 체계에서 상 표지가 술어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하는 모순-물론 과도기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사구조의 완정성을 갖추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음-을 아직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어휘나 통사구조로 동작상 개념을 보조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고립어의 특징으로 볼 때 이것은 아직 상 표지와 같은 전형적인 문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4. 맺음말

본고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개별언어학이 아닌 일반언어학 관점에서 동작상의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개별 언어인 현대 중국어에 적용하여 어떤 동작상이 전형적인 문법상으로 구현되고 어떤 동작상이 구현되지 않는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치론과 중간 단계 기준값이라는 중간 숙주 개념을 도입하여 동작상의 체계를 만들었다.

현대 중국어에서 어떤 동작상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분석하면서 그 구현 방식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야 함을 밝혔다. 첫째, 전형적인 문법상인 상 표지 ‘了, 着, 過’가 술어 뒤에 와서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正, 在, 正在’와 같은 시간부사가

24) ‘완망성’을 띠는 것을 ‘완망상’이라는 문법상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마지막 층위에 서만 ‘-상’을 붙이고 최상위부터 중간 계층 단계에서는 ‘-성’을 붙였다.

25) 이 표의 몇몇 용어는 바라보는 관점 또는 초점에 따라 달리 나타낼 수도 있다. 예컨대 ‘미결성(未結性)’을 ‘미종결성(未終結性)’으로, ‘단속성(斷續性)’을 ‘비연속성(非連續性)’으로, ‘선행성(先行性)’을 ‘대과거성(大過去性)’으로, ‘비계승성(非繼承性)’을 ‘지속성(持續性)’으로 ‘비주기성(非週期性)’을 ‘반복성(反復性)’으로, ‘완료성(完了性)’을 ‘완결성(完結性)’으로, ‘경력성(經歷性)’을 ‘결과지속성(結果持續性)’으로, ‘성사성(成事性)’을 ‘일단락성(一段落性)’으로, ‘예정성(豫定性)’을 ‘임박성(臨迫性)’으로, ‘예정상(豫定相)’을 ‘임박상(臨迫相)’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술어 앞에 위치하여 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부사어 역할을 하면서 상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 일부 연구자들이 상 표지로 보는 견해와 달리 본고는 아직까지 전형적인 문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셋째, ‘快(就)(要)…了’처럼 통사 구조를 통하여 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도 전형적인 문법상으로 볼 수 없다.

앞으로 ‘正, 在, 正在’와 같은 시간부사가 과도기를 거쳐 상 표지 역할을 하면서 영어의 완료형 구조인 ‘have+p.p.’(past participle, 과거분사)처럼 ‘在+V+着’, ‘有+V+過’ 등의 전형적인 분석형 형식으로 변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조경환, 『중국어의 상: 안과 밖』, 도서출판 역락, 2015.
龔千炎, 『漢語的時相時制時態』, 商務印書館, 1995.
戴耀晶,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浙江教育出版社, 199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2016.
Bernard Comrie, *Aspect(體範疇)*, 北京大學出版社, 1976/2005.
Zeno Vendler, *Linguistics in philosophy*,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논문>

- 강병규, 「현대중국어 미완료상 표지 ‘在’와 ‘着’의 동사 결합 관계 양상 고찰」, 『중어중문학』, 48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1.
김덕균, 「현대 한어 진행상 ‘在’와 지속상 ‘着’의 認知的 顯著性」, 『중국인문과학』, 32집, 중국인문학회, 2006.
이은수, 「현대 중국어의 진행과 지속의 시태 표지」, 『중국어문논총』, 30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6.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 「현대중국어 의문문에 쓰인 ‘呢’의 의미자질」, 『中國學』, 第61輯, 대한중국학회, 2017.
최규발, 「현대 중국어 사건의 고정화와 상(aspect)」, 『중국어학논총』, 28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顧 陽, 「動詞的體樂體態」, 『共性與個性』, 北京語言大學出版社, 1999.
鄧守信, 「漢語動詞的時間結構」, 『漢語語法論文集』, 文鶴出版有限公司, 1985.
陳 平, 「論現代漢語時盼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 6, 1988.
楊素英, 「漢語當代動貌理論」, 『語法研究和探索』, 9, 2000.
Marc Moens and Mark Steedman, “Temporal Ontology and Temporal Refer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14(2), 1988.
Tai, James, “Verbs and Times: Vendler’s Four Categories”,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84.
Zeno Vendler,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66(2), 1957.

<기타 자료>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08473&searchKeywordTo=3#wordsLink [2023.10.3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體, 體系, 現代漢語, 體標識, 實質詞彙, 語法結構				
	영문	Aspect, System, Mandarin Chinese, Aspect marker, Substantive words, Syntactic structure				
<div><div>The Aspect System and Its Realization in Chinese</div><div>Chang Ho-Deug</div><p>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previous research in this paper and first present a theoretical system of aspect system from a general linguistic perspective. It was intended to clarify how this general linguistic aspect system is realized in modern Mandarin Chinese. To this end, an aspect system was created by introducing a dualism and the intermediate host concept(intermediate stage reference values).</p><p>While analyzing which motion images are implemented in modern Chinese, it was revealed that the implementation method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main aspects.</p><p>Firstly, the aspect marker ‘了, 着, 過’ comes after the predicate and realizes it. Secondly, substantive words which is time adverbs such as ‘正’, 在, and ‘正在’, is placed in front of predicates to represent aspectual concepts. Since they still act as adverbs and show aspectual concepts, we believe that they cannot yet be viewed as a typical grammatical aspect marker in this paper, contrary to the opinions of some researchers. Thirdly, like ‘快 {就}(要)...了’, it expresses a aspectual concept through a syntactic structure. This also cannot be seen in typical grammatical aspect marker.</p><p>In the futur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substantive words such as ‘正’, ‘在’, and ‘正在’ will serve as a transitional aspect marker and change into an analytical form(‘在+V+着’ and ‘有+V+過’) like ‘have+p.p.’(past participle) of English.</p></div>						
저 자	장호득 / 張皓得 / Chang Ho-Deu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4.02.09.	심 사 일	2024.03.05.	게재확정일	2024.03.11.